

### 물안개에 싸인 팔영산

김용안씨, 신세계갤러리서 첫 개인전



'무제(untitled)'

비 온 뒤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난 산자락을 화폭에 담고 있는 서양화가 김용안씨가 12~2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마음을 여는 풍경'을 주제로 안개에 둘러싸인 고층 팔영산, 화산 천연산 등을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안개 자욱한 산의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자연의 장엄함과 숭고함을 전해준다.

움직임이 살아있는 안개와 산자락의 푸름을 대비시켜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씨는 더욱 선명한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유명산을 떠돌다 보니 개인전이 늘어났다. 김씨가 담아낸 사실적인 풍경은 육상에 쥔 현대인들이 명상의 세계로 이끌고, 산사에서 풍경소리를 배경으로 뒷산을 바라보는 듯한 한가로움을 선사한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온고을 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신사임당 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다. 현재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추천작가와 미술단체 'LIVE' 'L.M.N.'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가야금 선율과 비보이가 만나

'그린나래' 15일 유스퀘어 광장 특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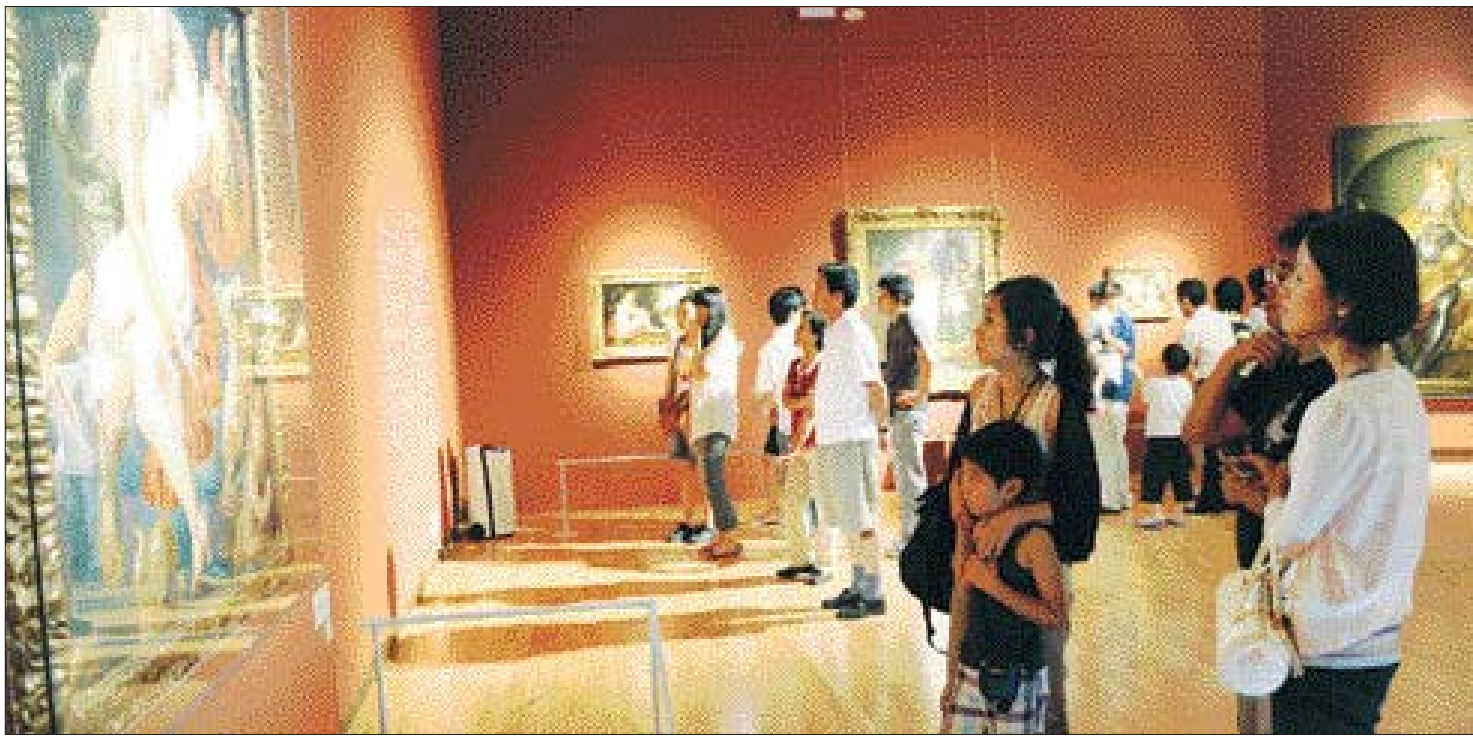
지난해 창단한 5인조 가야금 앙상블 '그린나래'(사진)가 오는 15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무대에서는 그린나래는 이번 공연에서 전통 가야금 연주곡과 민요, 가야금 창작곡은 물론, 팝송, 영화음악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을 가야금 선율로 재해석해 들려준다.

또 흥겨운 가야금 연주와 비보이 댄싱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돼 있다.

조선옥·홍윤진·김한아·강지민·송정란씨로 구성된 그린나래는 모두 전남대 국악학과에서 가야금을 전공했으며 지난 1989년 창단한 광주가야금연주단 멤버로도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놀이과 신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일(모듬북)씨와 '도드리' 단원인 김산옥(노래)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루벤스, 바로크전' 여름방학 체험학습 인기



10일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루벤스의 대표작인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보레아스'를 감상하고 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 “교과서에서 본 명화가 여기 있네”

#### 초·중·고생 발길 줄이어 3만여명 관람 영상물·도슨트 설명도 풍부 이해 높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하 루벤스전)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루벤스전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1577~1640)의 대표작과 바로크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자리로 개막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루벤스전은 문화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전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중세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개막 25일째를 맞은 9일 현재 루벤스전에는 청소년 1만명을 비롯해 모두 3만여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도슨트가 들려주는 바로크 미술' 강의와 다양한 동영상 상영으로 바로크 시대 미술

의 주제와 작품에 사용된 기법을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어 교육 효과도 크다. 10일 오전 11시, 막바지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루벤스전이 열리는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아침부터 많은 관람객이 몰려 블록버스터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미술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로크 미술을 즐기며 여름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하려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구에서 바로크 미술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중세 미술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도슨트의 작품 설명을 귀 기울여 들던 어린이들은 메모를 하느라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부모들도 역동적인 움직임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루벤스 작품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신중섭(광주 고려

고 3년)군은 "교과서에서만 봤던 바로크 미술을 광주에서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면서 "다양한 영상물과 도슨트 설명이 풍부해 중세 미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도슨트는 평일과 주말 4회, 시립미술관이 밤 9시까지 야간 개장하는 수요일에는 5회 현장 설명을 한다. 다른 지역 국공립미술관이 주말에는 도슨트를 배치하지 않는데 비해 현장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또 단체 관람(50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술관 강당에서 1시간 가량 도슨트의 중세 미술 강의와 동영상 교육이 결합된다. 대가의 작품 1~2점만을 가져와 걸치장만 하는 부실한 블록버스터 전과 비교해 이번 루벤스전은 전시의 질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전 시작들은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보레아스(Boreas Abducting Oreithya·1615)' '삼미신'(원제 The Three Graces·1640) 등 총 보름가역만 2천500여원에 달하는 75점의 명작들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유치원생 1천원. 단체는 2천원씩 할인된다. 문의 062-510-0700.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공연

가족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이 공연된다. 14일 오전 10시40분, 15~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그림형제의 원작인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 버려진 두 남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겨운 노래와 율동으로 구성했으며, 숲속을 무대로 흥미롭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문의 02-2654-68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인문올림픽과 '문화중국'

10년전만 해도 중국에는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없었다. 전시기획을 가르치는 전문기관도 전무한 데다 굳이 큐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미술관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베이징에서 큐레이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중앙미술아카데미가 유일하다.

'전시기획'이라는 전문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미술관들은 대신 예술인들을 관리자로 뽑아 학예사 업무를 맡도록 해왔다. 특히 미술관장은 전문성 보다는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을 성실히 '받드는',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제 아무리 유능한 전시기획자라도 당국의 지침을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미술관의 주요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제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큐레이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중국인들 역시 '미술관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지난해 상하이 쟌다이 현대미술관 예술감독을 지낸 큐레이터 김성희(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씨는 이 같은 중국의 폐쇄적인 문화정책을 몸소 체험했다. 쟌다이 미술관 이사회는 일본 모리미술관 학예사로 일한 그의 국제적인 경험을 높이 평가해 이례적으로 김씨를 예술감독으로 임명했다.

김씨는 취임 후 첫 프로젝트로 흥보부와 학예실 실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씨의 청사진은 예기치 않은 구인난으로 사장(死藏)됐다. 이들 부서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미술관 직원들이 이 같은 '변화'에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술관 이사회는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끌어 올리기 보다는 수익창출에만 급급해 김씨는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아르뉴스' 2008년 5월호)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요즘, 중국에는 '제2의 문화혁명'이 불고 있다. 그 주인공은 미술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은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앞다투어 대형 빌딩들을 건립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관은 이들 도시가 가장 공들이는 곳이다. 청두 현대미술관 등 오는 2010년까지 중국에서 약 1천200개의 미술관이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의 주요 국영미술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외산에 따르면 베이징 서우두(首都)박물관의 경우 평일 7000~8000명, 주말엔 최고 1만2천명이 방문한다. 그동안 미술관과 담을 쌓고 살았던 중국인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문화생활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문화 향유의 저변을 위해 2400개 박물관 중 600개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주민이 두둑해진 중국 정부가 '문화'를 공짜로 나눠주기란 한 것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지난 8일 개막됐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 '녹색올림픽' '과학올림픽' '인문올림픽' 등 세가지 주제를 내걸었다. 무엇보다 인문올림픽을 내세워 '문화강국'으로 비상하려는 중국의 날개짓이 예사롭지 않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sections for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